



권선택 시장 정치적 운명의 날 14일로 확정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로 최종 결정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권 시장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무죄가 되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장에 탄력이 붙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무죄로 인정되면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은 정지되고 행정부 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장을 이끌게 된다.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 출

마도 어렵게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포럼관계자들을 동원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이고 특별히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시장직 당선직 후인 2014년 12월 기소됐다.

대전지법과 고법에서 모두 8월 8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직 박탈 위기에 놓여있었지만,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기소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 거취가 대법원에서 정해지게 됐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 배정과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리적 절차가 진행됐다.

권 시장의 대법원 판결일이 결정되면서 대전시 판가는 물론 지역 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대전시는 권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시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유죄가 되면 대전시정은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 시장의 정치적 운명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예비후보들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권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복기자

성평등기획 특별보좌관 대전시 배영옥 씨 임용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새성평등기획 특별보좌관에 배영옥(裴英玉·49) 전 아름다운가게 대전충청본부장을 임용한다.

배영옥은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현 대성여자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목원대 대학원을 졸업한 대전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여 동안(재)아름다운가게에 재직하면서 대전충청본부장, 매니저 등을 역임했다.

(재)아름다운가게 재직 당시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함으로써 재활용 기부 문화 확산의 중심역할을 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등 대전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성 평등사회 실현'을 사회구성원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대중화에 적극 참여해 성평등 실현 및 사회개혁을 위해 앞장 서 왔다.

배영옥 예정직은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시민, 여성단체 및 시민들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대전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민선6기 4년차인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여성정책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의 여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 확산'과 '여성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민선6기의 기반방향과 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강화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대전 동구, "행복연탄으로 온기를 나눠요"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난 11일 신흥동 일원에서 동구청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찾아가 '행복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일부터 동구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행복연탄 나누기 후원금 1차 모금이 1천여 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더 많은 주민들이 모금 운동 동참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개정 서명 논란

농협 충남본부, 사은품 받았으니 서명하세요 유도나 강요

농협충남본부 산하 00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개정 반영에 동참하는 서명을 받는 과정에 선물을 제공해 유도나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6시 40분경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해 지켜본 결과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벨론을 받았으니 서명을 하라는 현상이 목격됐다.

또 다른 고객에게는 쌀로 가공한 컵라면을 주면서 받았으니 서명하라는 말을 했고, 고객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을 하기도 했다.

구매한 영수증 2장 가져 보여주자 농협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벨론을 2개 주면서 한 사람은 누구요 라고 묻자 지인이라고 말하자 지인 이름 쓰고 서명하라고 해 1차로 2번 서명하는 현상도 목격됐다.

농협충남도지부가 서명을 받기 위해 고객들을 선물로 유혹하거나 강요해 농업기헌법제정 청원서명을 받는 것은 서명을 돈으로 사

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취재진이 서명을 받기 전 설명은 없고 선물 받았으니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유도나 강요라고 말하자 취재기자 일갈만 쳐다 보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질뒀됨을 시사한 것처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의 지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1천만명에게 서명을 받아 농협연구소에 제출하면 농협연구소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해 서명 자체가 중요함을 암시했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일을 선물공세로 서명을 받아 헌법을 만들려는 서명은 중단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받은 서명은 무효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의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확보 및 홍수방지,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이 헌법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록 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의 규범이라고 까지 하는 농협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만 하기에 겁겁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헌법은 국민 한사람이라도 피해보지 않아야 하고 농업기헌법제정청원 서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00지부 관계자는 만약에 선물주고까지 서명을 받는다면 잘못된 일이다. 서명만 받게 하겠지만 벨론이나 쌀라면을 주는 것은 오픈기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헌법 개정 반영을 위한 청원서 서명을 사은품부터 주고 받았으니 서명하라고 강요나 유도하고 받은 서명은 원천무효이고 서명을 당장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포=김정화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이정 할머니 영결식

당진 시민장 형태로 '최고 예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이정 할머니(향년 93세)의 마지막 가시는 길만금은 외롭지 않게 됐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1층 주차장에서 거행되는 이 할머니의 영결식은 시민장 형태

로 치러진다.

영결식 공동장례위원장으로 김홍장 시장과 이종운 당진시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 문화재단 이명남 이사장(당진 평화의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이 맡아 17만 시민들을 대표해 최고의 예우

를 다할 계획이다. 영결식은 약 1시간 동안 거행될 예정이며, 이후 이 할머니를 태운 운구차량은 노제가 진행되는 당진 버스터미널 광장 당진 평화의 소녀상과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에 위치한 이 할머니의 자택을 들른 뒤 화장터가 있는 천안 추모공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후 이 할머니의 유해는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에 안치돼 영면에 든다.

한편 11일 故이정 할머니의 장례 첫날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당진시민 500여 명이 조문했으며, 12일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수현 청와대대변인 등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정파 초월한 협력 · 토론문화 정착... 주민 생존권 수호 최선”

대전 중구의회 김귀태 의원

대전 중구의회 김귀태(국민의당·목동, 중촌동, 용두동) 의원은 현장 의정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의 출발 점도 현장이고, 의정 생활의 중심도 현장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동네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그들에게서 지역 발전의 조인과 충고가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대전투데이는 김귀태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제7대 대전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지났는데요.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지역 주민의 뜻과 꿈, 삶과 함께하는 의정철학을 모토로 현장밀착형 의정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 7대 의회 전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과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상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재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을 위해 앞장섰고, 특히 현장 의정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죠.
목동 3.47억 재개발 진행이 속도감을 내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노력했고 중촌 19억 재건축, 용두 1.29억 재개발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전 중구지역의 현안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대전 중구는 대전의 모태지역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운동의 발전을 위한 전진적 정책적 방향의 두 축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진했던 17개 동 재개발, 재건축의 집중 지원과 주민의 품으로 온 삶을 위한 문화공연의 확대, 도시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

선진에서 어려운 시절 아당의 지방의원을 하셨고 소천하신 지역 민주화의 대부 송재빈 선생님께서 살아 생전 아당의 믿음이 되라하신 말씀을 새기며 2002년 노무현을 만나 본격적으로 현실정치에 뛰어들었고 열린우리당 대전 사무처장, 국회 외통위원장 보좌관을 거쳐 2010년 제 6대 중구의원, 7대 중구의원 현직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님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요.
현장민원 채집과 사랑방 간담회의 상시적 운용, 개인밴드 및 sns 활용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적 민원 접수된 사항을 점검하고 경청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남은 의정 활동이 있다면?
지방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조례안 대표발의와 서대전역 호남선 열차운행 증차 촉구 건의안, 독립운동의 상징인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한 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동사로 중구 지회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요건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주민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에서 나아가 지방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합니다. 정당에 종속되는 공천제를 없애고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의 애환을 풀어주는 지방의회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내년 6월이면 3선 의원에 도전합니다. 중구의회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정상적 관계 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주민이 바라는 의정직에 나설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난 8년 지역 주민 여러분께 받은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두배로 일하고 세배로 뉘었습니다. 우리 목동, 중촌동, 용두동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만 바라

보며 주민의 힘으로 새로운 의회집서, 쌍방향 밀착형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속에, 주민의 뜻속에, 주민의 꿈속에 사랑받는 의원으로 함께하는 귀한 동네, 주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한글타이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빠르게 달리는 기술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기술까지 100년 이상의 한글타이어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모방하는 기술을 한글타이어는 알고 있습니다. 신화(神話)의 영감을 얻어가는 영고(靈鼓) 한글타이어가 자연과 일체(一體)가 되었습니다.

enfiren
압프랑 효과란? 한글타이어의 압프랑 효과는 타이어의 접지면적을 넓혀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한글타이어

창업보육사업 'Start-up 네트워킹 데이' 열려

신문대, 교수-학생-기업이 상호 발전 위한 멘토-멘티 3자 협약 체결 진행

신문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백광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린 '주(住)·산(産)·학(學) 글로벌 페스티벌' 기간에 Start-up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신문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는 2017 신문 Start-up 상생협력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신문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8개사와 교수, 창업동아리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창업을 위한 기본 교육인 Start-up 가이드를 시작으로, 교수-학생-기업이 상호 발전을 위한 멘토-멘티 3자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교수는 입주기업과 산학공생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컨설팅을 제공, 입주기업은 창업 동아리에게 기업 운영 노하우와 제품 개발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해 창업동아리가 실질적 창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예정이다.

또, 충청권 소재의 창업보육센터와 연



합해 창업자간 네트워킹 협업을 유도하는 2017 충청권 연합 Start-up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문대 창업보육센터, 순천향대 순천향BI 창업보육

센터,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 호서대 벤처창업보육센터와 입주 기업 22개사가 참여했다.

1부에는 투자자를 사로잡는 스피치 스킵(부제목: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이라는 주제로 스타강사이자 개그맨인 권영찬의 창업 특강이 진행됐다. 2부에는 수출, 세무, 마케팅, 경영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1: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각 대학의 입주기업들은 제품 전시회를 개최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광현 센터장은 "교수, 기업, 학생이 함께 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며 "각 대학의 입주기업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기관이 상생 협력을 통해 창업보육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산=리량주기자



중부도시가스 사랑의 연탄나눔 실시

중부도시가스(대표이사 김병표)는 지난 11일, 아산, 세종지역 독거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사랑의 연탄 3000여장을 전달했다.

이번 연탄나눔은 지역의 복지관 등을 통해 겨울을 나는데 반드시 연탄이 필요한 분들을 추천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회사내 그린나래봉사단에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연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탄나눔에 참여한 봉사자는 '추

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눔, 가스전기 시설점검, 노후된 가스기기교체 등의 봉사활동 릴레이를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산=리량주기자

아산시 공무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아산시는 지난 8일, 사회적경제와 주제로 노동상담소와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노동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소속 일반근로자 노동조합 2곳이 노동조합 결성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내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문제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추진된 것으로 금년도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대상교육 확대 추진이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은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이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 및 새 정부 노동정책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과는 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담당자의 노사관계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치원 사회경제과장은 "노동정책의 한 분야로서 비정규직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대상 노사감통 예방과 노동감수성 향상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교육 설문지 및 효과 등 분석을 통해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산=리량주기자

(042)538-3030

전문가 용역 거쳐 중앙선 폐선 245km 활용방안 마련

선제적 활용 방안 수립으로 복합관광테마공간으로 탈바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선이 되는 중앙선 245km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선 폐선에정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 지난 9일 해당 시·군 등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단은 철도 선형 개량과 노선 변경 등으로 원주에서 경주까지 총 9개 시·군에 걸쳐 발생예정인 길이 245km, 약 477만㎡ 상상의 중앙선 폐선부지에 대

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거쳐 지난 3월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현장실사, 지자체 개발 계획,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의 '중앙선 폐선에정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중앙선 폐선 부지 전체에 대한 주(주)태마는 '관광'이고, 3개 권역이 각각 '레저&체험(원주~단양)', '휴식&관광(영주~군위)', '역사&문화(영

천~경주)의 부(부)태마로 나뉘어있다. 공단은 각 태마 별로 트레킹 코스, 기차편선, 역사·문화 탐방로 등 다양한 활용사업을 소개해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태마에 맞게 폐선 부지를 활용하도록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선 폐선은 중부내륙 지역의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의 이점을 살린 '복합적 관광테마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 전문가 되는 길 조폐공사에서 배워요"

조폐공사 교육기부 활동... 올해 46개교 1800여명 참여

'돈 만드는 사람들-진로직업 특강', 'KOMSCO와 함께하는 돈 이야기' 등 한국조폐공사의 특색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초·중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폐공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6월 교육부가 실시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심사에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직업능력개발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 향후 정부연계 프로그램 홍보시 활용기로 한 바 있다.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돈 만드는 사람들-진로직업특강'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조폐공사의 여러 직업군(화폐

디자이너, 화폐조각가, 보안기술전문가, 위폐감별사, 품질전문가, 인쇄전문가, 주화전문가, 훈장전문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강의와 체험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생한 직무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 'KOMSCO와 함께하는 돈 이야기'는 화폐에 얽힌 재미있는 역사,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몰랐던 화폐 속 이야기를 배울 수 있다.

조폐공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태운 학생(부천 수주중 3)은 "화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돼 돈을 새롭게 보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대구성광고 김상형 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나도 화폐조각가'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했는데 화폐박물관과 연계해 박물관 견학까지 할 수 있었다"며 "진로 체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로직업체험 강사인 조폐공사 기술연구원 고경철 연구원은 "화폐 전문가는 화폐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망 직업인 만큼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폐공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10월말 현재 46개교 1800여명이 참여했다. 조폐공사 대전 화폐박물관(유성구 소재)과 경산 화폐본부 두 곳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부의 꿈길 사이트(www.gomgi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올해 공공비축(시장격리) 미곡 매입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오는 12월 4일까지 각 읍·면·동 별 34개소에서 총 71차례에 걸쳐 2017년 공공비축(시장격리) 미곡 매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미곡 매입 물량은 지난해보다 40t당 21.2t포대 21만 6336포대이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8월 산지쌀을 기준으로 지급했던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중 확정된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 견조보 출하 시 수분함량 13~15%를 유지하고 마을별 매입일정에 맞춰 버를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

2017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유상선)는 지난 10일 청양읍 복지센터에서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가뭄발생 현황과 대처방안 및 내년 영농대비에 중점을 둔 '2017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양지사 유상선 지사장은 "농업인과 관계기관 사이에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이날 물관리 현장설명회에는 이석화 군수를 비롯해 이기성 군의회 의장, 김홍열 도의원, 수리시설감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내고항 물해설가 특강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의 중요성 및 농업용수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했다.

청양=정상범기자

건강대와 발달장애 부모들 뭉쳤다

발달장애인 자녀 가진 부모님들 함께 설립 예비 사회적기업



건강대학교(총장 정연주)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뜻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과 함께 설립한 예비 사회적기업인 '발그레'가 10일 건강대병원 1층 로비에서 수제비누 및 수제 청 판매행사를 가졌다.

이날 판매자로도 나선 백승례 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지적장애를 가진 어른들도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엄마로서 매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발그레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건강대 농산청의 융합캠퍼스에서 열린 '제12회 도민IT경진대회'에서 발그레가 만든 수제비누와 수제청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이번에는 건강대병원 로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선 것이다.

백 씨는 이어 "부모들이 처음 이런 제품을 만들고 판매에 나서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하지만 건강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지원과 교수님들의 무료 특강 등을 통해 이렇게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발그레가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시민친화 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아산장미마을, 시민친화공간 조성 위해 머리 맞대



아산시는 지난 9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12개 관련부서들이 장미마을의 기능전환을 통한 시민친화공간 조성을 위해 머리 맞댔다.

윤양1동 통장협의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3여년 간 장미마을 순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 민·관 합동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 과 세브모텔 리모델링과 도로과 도로확포장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공유했다.

오세현 부시장은 "장미마을 기능전환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의 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심히 살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각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도시재생과에서 장미마을을 포함한 원도심 주변 지역을 사람중심의 도시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향후 분기별 정기간담회를 개최해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생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 공무원 건강 적신호... 질병휴직자 증가

지방공무원 질병휴직현황... 지방공무원들의 건강이상 매년 증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질병휴직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들의 건강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89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5년간 62%가 늘어났다. 특히 세종시 3명→11명(3.6배), 울산시 13명→40명(3배), 광주시 19명→50명(2.6배), 제주도 21명→53명(2.5배), 충북도 42명→98명(2.3배), 전남도 60명→130명(2.2배), 인천시 54명→113명(2.1배)로 지난 5년간 높은 질병 휴직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병역의무자도 2012년 12명, 2013년 35명, 2014년 95명, 2015년 149명, 2016년 190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군대 가기 전 젊은 층의 공무원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업무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과 정비례 한다"고 전하며, "철밥통이라

국토정보공사대전총남

하반기 공간정보 워크숍

한국 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대전총남지역본부는 지난 9~10일 양일에 걸쳐 '17년 하반기 공간정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지원사업인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사업, 국가지원번호검정사업을 비롯한 여러 업무의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사업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관내 17개 지사에서 각 기관별 제안한 '지역특성화 공간정보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충남도의 명실상부한 마을 만들기 선도지역 입증

아산시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2017년 전국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월랑2리 장수마을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8년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40여명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충남도의 명실상부한 마을 만들기 선도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농촌현장포럼은 마을주민,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함께 몇 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주도형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전국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산시 월랑2리 장수마을은 이번 대회에서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난개발로 훼손되었던 마을

을 주민들이 화합해 월랑저수지 주변 공간을 가꾸으로써 명품 꽃마을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간접하게 그려냈다. 또한, 2016년 희망마을선행사업, 2018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는 등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실현해 월랑 2리 장수마을의 자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이번 수상으로 월랑2리 장수마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워크숍에서 또한 차례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aT, 김치·반찬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情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웃사랑 나눔 전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aT)는 지난 2일과 10일 김장철을 맞아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Co-win"을 실시했다.

"CO-WIN"은 Cooperation과 Win-win의 합성어로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일 및 10일에 각각 단무지·반찬 제조업체인 ㈜임미농수산(세종소재)과 김치 제조업체 비에스푸드

(주)충남 천안 소재)를 방문한 aT 직원들은 제조과정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단순 제조에 그치지 않고 직접 담근 김치, 풍자반 등을 정성스레 포장해 지역 아동보육시설인 '익선원'에 전달함으로써 추운 날씨를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날 김치 기부에 동참한 비에스푸드(주) 황진하 대표이사는 "매년 aT와 맛있는 김치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지친 일상, 우리 김치 드시고 모두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기복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음식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올겨울은 이웃간 온정 나눔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웃음치료 및 시니어 체조 진행

당진시 노인복지관 신체적 건강증진시키기 위해



당진시 노인복지관 관장 이병하는 지난 9일 어르신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층 대강당에서 노인복지관 회원 37명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및 시니어 체조를 진행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웃음치료사 오남영 강사가 진행했으며, 흥겨운 음악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진행해 어느 때보다 밝은 에너지가

풍기는 교육이었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웃음의 효과를 설명해 항상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기를 강조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 이병하 관장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대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오! 대전 스카이라드 영상전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영상애니메이션학과(학과장 박지원 교수) 학생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전 은행동의 '원도심 Original Downtown'으로 메인스크린을 통해 '오! 대전 스카이라드 2017 영상전'을 개최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대전대 링크+사업단과 대전마케팅공사 및 TJB가 후원한 이번 영상전은 세계속 교수를 비롯해 백지원, 신유성 교수들의 지도 아래 7분 분량의 실험적 영상이 제작됐으며, 매일 오후 7시 10분 즈음 스카이라드 스크린을 통해 상영 중에 있다.

영상은 젊은이들의 빠르고 리드미컬한 감각과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총 4편이 구성됐으며 1편은 '오!대전 스카이라드 2017'로 밤하늘 우주에 펼쳐지는 별들의 잔치를 주제로 한 영상이, 2편은 '원도심 Original Downtown'으로 원도심을 재해석한 영상이 상영 중에 있다.



대전보훈청, 홍보연구모임 워크숍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 10일 민·관 합동 공무원 연구모임인 '대국민 홍보프로젝트' 따뜻한 보훈 S.N(Supreme NewsService)워크숍을 실시했다.

백성 교육 향한 고종의 열망, 120년 만에 움트다

'대한제국과 교육배재학당에 펼쳐진 고종의 꿈' 서근대 고등교육 호시디취



근대 고등교육을 구현하려는 고종(高宗) 황제의 꿈이 120년 만에 화려하게 깨어났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관장 김종현)은 지난 10일 제1기 기획전시실에서 '대한제국과 교육배재학당에 펼쳐진 고종의 꿈' 기획전을 개최했다.

'대한제국 선편 120주년 기획전'인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에 사진 53건과 사료 24건을 삽입해 고종의 근대 고등교육 열망을 재조명했다. 또 배재학당 본관 교사 타임캡슐에서 발견된 동전모음과 '국민소학독

본' 등 새로운 전시물 6건을 선보였다. 이 자리엔 광명근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김영호 배재대 총장, 이재하 배재고 교장, 서명석 배재중 교장을 비롯해 법인 이사·감사 등 120여명이 참석해 기획전을 축하했다. 특히 전시는 120년 전 고종이 부국강병을 꿈꾸며 쏟은 교육열에 집중했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培材學堂)에서 고종의 교육 구상이 구현된 점도 다뤘다. 전시는 배재학당이 중등교육 뿐 아니라 '배

이정복기자

“인사담당자, ‘논리제시형’ 면접질문 가장 선호”

2017 중등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충남도교육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참석

<사람인>조사결과... 답변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솔직함과 진정성’

기업 인사담당자는 면접 시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 및 근거를 말하는 ‘논리제시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17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면접 질문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논리제시형’이 30.5%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 자기소개, 일상사 등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자유발언형’(21.5%), ▲ 이수 등 주제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는 ‘핵심요약형’(20.9%), ▲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관파악형’(11.9%), ▲ 찬성/반대, 긍정/부정 등 선택을 요하는 ‘양자택일형’(8.5%), ▲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답변내용을 파고들어

압박하는 ‘꼬리잡기형’(4.5%), ▲ 정답이 없어 창의력을 발휘해 답해야 하는 ‘황당질문형’(2.3%) 등의 순이었다.

질문 유형별로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논리제시형’과 ‘핵심요약형’, ‘황당질문형’, ‘꼬리잡기형’은 ‘실제 역량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서’를 첫 번째로 꼽았다. ‘가치관파악형’과 ‘자유발언형’은 ‘인성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양자택일형’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서’를 각각 1위로 선택했다.

면접 질문 중 업무관련 내용과 인사관련 내용의 비중은 평균 47.53(업무:인사)으로 집계돼, 비슷한 비율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접자가 답변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솔직함과 진정

성(22%)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논리적 사고’(20.9%), ‘회사인재상과의 부합 정도’(19.8%), ‘의사표현력 및 설득력’(10.7%), ‘침착성 및 대응력’(9%), ‘조직적응력 수준’(8.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면접관은 면접장에서 어떤 분위기를 선호할까?

10명 중 7명은 ‘유머 등이 오가는 편안한 상태’(74%)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적당히 긴장된 상태’를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는 26%였다.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편안한 상황에서 더 진솔한 답변을 할 것 같아서’(63.4%), ‘복수응답되는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지원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38.2%),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23.7%), ‘지원자 간의 상대 평가가 더 용이해서’(8.4%) 등이 있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논리적인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선호하는 만큼,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드는 구성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또한, 꼬리를 무는 형태의 구조화 면접에서는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면 앞뒤가 안 맞거나 말문이 막힐 수 있어 오히려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진솔함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부터 11일까지 아산 캠프인재개발원에서 중등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를 중학교 진로전담교사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현재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코칭 및 지원을 위해 진로수업과 진로상담 등 진로활동을 담당하면서 학교 진로교육 기

획 등 단위학교 진로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발제-그룹토의 과정과 교수학습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택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진로전담교사의 정체성과 책무성 제고 방안 ▲진로 연계 프로젝트 수업 실제 ▲진로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진로와 미래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됐다.

이정복기자



천안월봉고, 우리들의 추억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천안월봉고등학교(교장 박돈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0일에 걸쳐 ‘교내 벽화그리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학교 안처리에 느껴졌던 담벼락에 벽화그리기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만들기에 앞장서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따뜻함을 선물했다.

공주영명고, 추수감사절 축제 개최



개교 111주년을 맞이한 공주영명고등학교(교장 이기서는)는 지난 8일 감리교계통 미션스쿨로서 특색 있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추수감사절 축제’를 개최했다.

1부 초대교회 서소원 목사의 특별 설교에 이어서 2부는 반별 ‘복음성이 경연대회’가 이어졌고, 중간 중간 교사 특송, 교사 연주, 교사 찬무 등을 통해 사제간의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졌다.

추수감사절 후 제단 장식을 했던 쌀과 과일 등을 옥동동 경로당, 옥동동 동사무소, 금학지구대 경찰서 등에 직접 배달하며 주위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배방고, 사헌순 교수 초청 특강 실시

예술이 사람에게 주는 성장과 발달이라는 주제로 개최



배방고등학교(교장 장경수)는 학생성장 발달 책임교육 네트워크 연수로 플루트 연주자 사헌순 교수를 초청하여 예술이 사람에게 주는 성장과 발달이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특강을 지난 7일, 실시했다.

학생성장 발달책임교육은 미래혁신역량을 갖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과 배움이 있는 참학력으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책임지고 교육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3자 협약에 의해 실시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

모두가 성장하는 책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꿈 OK, 행복 YES 학생성장 발달 책임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체크리스트 카드를 작성하여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성장 발달 책임교육 연합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사헌순 교수의 예술특강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이해하고 예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직사회의 지위·권한 남용 ‘갑질행위’ 근절

대전교육청, 동일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선학교(기관)에 근절 대책을 마련·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상급자의 다양한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 사건이 발생, 이러한 근본 원인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절 대책의 내용으로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자체점검 강화, 갑질사례 전파 등 예방교육 추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매뉴얼’과 함께 상급자가 지위와 권한에 따른 업무지시에 ‘한번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폭력, 폭언 등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당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논산시 학생 및 학부모 문화유적지 탐방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원·교육심락회 주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이 지원하고 교육심락회가 주최하는 2017 논산시 학생 및 학부모 문화유적지 탐방이 11월 1일에 실시되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애호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한 이번 탐방에서는 논산시 관내 초등학교생 및 학부모 82명이 참여하였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논암서원, 개대사, 공주역사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각 문화유적지에서는 문화해설사와 동

반하며 다양한 설명을 듣는 일정을 소화하며 그동안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내외국 문화유적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됨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가족과 함께 한 가을날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시간이었다.

논산시에 이어 계룡시 학생·학부모 문화유적 탐방 또한 백제역사박물관 외 4 곳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11월 1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논산=김태선기자

“가래떡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다”

청양중, 청양교육사랑회로부터 가래떡 15상자 선물 받아



청양중학교(교장 서용문)는 농업인에 대한 감사와 우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래떡데이(11월 11일)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청양교육사랑회로부터 가래떡 15상자를 선물 받았다.

청양의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양교육사랑회는 해마다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래떡데이는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농업인에 대한 감사와 우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여타의 기념일과는 달리 우리 쌀을 주제로 스스로 건강한 기념일을 만든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은 단순하게 과자를 나눠먹는 풍습을 넘어 더 크고 더 많은 양의 빼빼로를 사는 등 잘못된 소비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양교육사랑회의 가래떡 나눔 행사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바로 잡고, 친환경 로컬푸드를 이용한 전통먹거리 체험으로 청양지역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애호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올해 폭염과 기온으로 그들이 기득한 농촌에 이러한 작은 이벤트는 우리 농산물의 의미를 되살리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잘못된 소비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정상범기자

배움·실천·공유의 삶 위한 직무연수

세종시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전북 장승초등학교 등 전라북도 일대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56명을 대상으로 ‘학교현장 중심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직학습공동체 직무연수(이하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1단계 ‘연수와 토의·토론·실습’, 2단계 ‘배움 실현을 위한 학교에서 실천 적용’, 3단계 ‘실천 결과 공유와 성장을 통한 환류’, 4단계 ‘학교탐방으로 실천의지 다지기’로 구성됐다.

연수 순서는 ▲현장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종장의적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삶에 담은 교육과정 ▲삶과 얹어 연결되는 수업 ▲삶을 실현하는 생활교육 ▲삶을 지원하는 평가 ▲전문직학습공동체 운영의 지속성 ▲학교 속 마을교육, 마을 속 학교, 마을교육과정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장승초등학교에서는 마을교육과정과 학교공간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토론을 나눴으며,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와 마을이 연계된 교육거버넌스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연수 순서는 ▲현장 중심으로 적용될

세종=이정복기자

충남남부평생학습관, 발전자문위원회

학습관의 주요정책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충남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은 지난 11월 10일(금) 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습관의 주요정책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도승구 위원장(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하여 교육·문화 관련 지역인사 11명으로 구성된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습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이날 회의는 학습관이 평생학습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계

기를 만들었다. 참석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학습관의 주요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학습관이 남부지역(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의 거점 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하며, 평생학습 증진과 독서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용진 관장은 “앞으로 도래할 제4차 산업 시대는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등의 융합과 분석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에 따라, 학습관에서도 그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철도공단, KOTRA와 제 1회 인도네시아 철도학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월~10일 양일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과학기술평가응용청에서 인도네시아 교통부(MoT), 과학기술평가응용청(BPPT) 등 인도네시아 철도 기관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제 1회 인도네시아 철도학교’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 30분)



달님은 USB를 훔치려던 세나를 붙잡고 세나가 보는 앞에서 USB를 열어보지만 빈 폴더만 나와 당황한다.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 00분)

태성(임호아) 자리 잡은 술집에 몸을 숨긴 달래(유지연)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태성의 입을 틀

어막고 강패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린다. 달래는 태성의 성화에 술집을 나서며 어디선가 그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세기 소년소녀 (MBC 오후 10시 00분)



진진한애슬과 지진(김지석)은 조심스럽게 비밀 연애를 시작하고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달콤한 데이트를 즐긴다.

케이블 영화

아수라 2016 (OCN 오후 10시 20분)

김성수 감독의 범죄액션 장르 귀환 스크린에 생생하게 살아난, 물고 물리는 악인들의 지옥도 <아수라> 지옥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악인들의 전쟁 <아수라>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은 이권과 성공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시장 박성배(황정민)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한도경의 목을 짓누르는 검찰과 박성배. 그 사이 태풍의 눈처럼 되어 버린 한도경은 자 신을 진정처럼 따르는 후배 형사 문선모(주지훈)를 박성배의 수하로 들여보내고, 살아남기 위해 활안이 된 나쁜 놈들 사이에서 서로 물지 않으면 물리는 지옥도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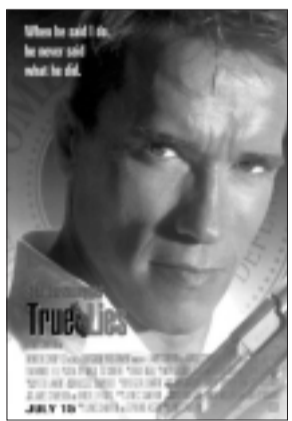
트루리즈 (채널CGV 오후 7시 40분)

눈덮인 스위스 제비바의 어느 풍차있는 고성에서 파티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성 주위를 총을 지닌 병사들이, 도베르만 뺨걸을 데리고 경비하고 있다.

성 앞, 일몰이 연 연못의 한 곳이 갈라지고, 잠수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해리 타스카(Hary Tasker: 아놀드 슈왈제베거 분), 핵 테러리즘 전무 미합중국 최고비밀기관 오메가 섹터의 스페셜 에이전트이다.

이번 임무는 성 안의 컴퓨터에서 극비 데이터 화일을 입수하는 것.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는 동료인 김이 잠시 스킵프를 통해 땅을 보고 있다. 여하간 성 안으로 잠입해 파티장으로 뒤섞여 들어가 임무를 성공한다. 그러던 중 한 여성과 시선이 교차한다. 그녀의 이름은 주노. 고대 페르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고미술상이다.

경비방이 소란스럽다. 들켜버린 것이다. 해리는 옆에 있던 주노와 맹고를 추면서 그 장소를 벗어난다. 정문으로 당당하게 퇴장하려고 하는데 경비병이 불러세워, 담배갑의 폭파 스위치를 누른다. 폭음과 동시에 해리는 돌진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program titles and times.

한밭초, 대전 최초 '빙상부' 창단

대전 초등학교 최초로 빙상부 창단식 가져



한밭초등학교 교장 전용선은 10일 오후 3시 한밭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 교육청 관계자 및 대전광역시 체육회, 대전빙상연맹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초등학교 최초로 빙상부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빙상부 창단은 한밭초등학교가 2년 동안 교육부 요청 학교체육 시범 연구 학교를 운영

한밭초등학교 교장 전용선은 10일 오후 3시 한밭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 교육청 관계자 및 대전광역시 체육회, 대전빙상연맹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초등학교 최초로 빙상부 창단식을 가졌다.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산시립도서관, 친절

문구제작·배포



아산시립도서관 관장 권경자(右)는 친절한 아산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아산시립도서관 관장 권경자(右)는 친절한 아산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공주시, 직장동호회 친선야구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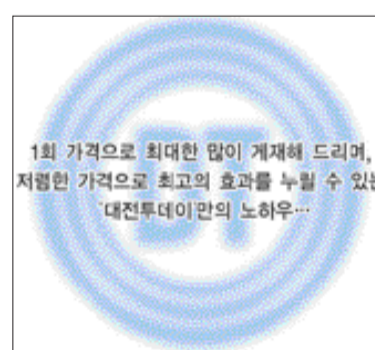
상호 우의 다지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위해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11일부터 18일까지 주말 기간 시립박찬호야구장에서 중앙부처 및 인근 지자체 공무원 등을 초청,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상호 우의를 다지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친선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공주시청 알바트로스야구단이 주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후원하는 이 대회는 지난 2013년 이후 5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등 16개팀 4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아산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 까지 2박 3일간 경주 및 안동의 주요 문화 관광지 일원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아산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 까지 2박 3일간 경주 및 안동의 주요 문화 관광지 일원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1398-8000 ▶스카이리프트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Table with columns for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imes.

이벤트 벤치마킹은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산의 우수한 문화



“여러분들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윤석우 총남도의회의장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한 공주시구조협의회 직속자 봉사자들을 도의회 의장실에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주위의 어려움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직속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랑의 사다리 밴드, 소외계층 214명에게 밀반찬 봉사 SNS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5천명 봉사단체 사랑의 사다리 밴드(리더 이정제)가 지난 11월 9일 오전 9시~오후 4시 대전 대덕구석봉동에 위치한 미림목재(대표 유희성)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해서 사랑의 밀반찬을 소외계층 214명에게 전달을 하면서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탄방동 새마을부녀회 ‘사랑니눔 김장담그기’ 행사 진행 새마을부녀회(회장 표정미)는 지난 9일 오전부터 탄방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200포기(600kg)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백석대 치위생학과, 예비치위생사 선서식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 보건학부 치위생학과는 10일 교내 조형관 807호에서 '제7회 예비치위생사 선서식'을 개최하고 치위생사로서의 인류봉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공주대, 시민과 함께 '소통의 1박2일 책임기 여행' 펼쳐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과 1박2일 독서토론 준비모임 '한살림충남남부지부', 교사독서토론모임 '간서치' 등 6개 단체는 지난 8일 공주대 도서관 자료실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책임기 여행 프로그램을 펼쳤다.



은양5동, 사랑의 자전거 선물 아산시 은양5동 복지동장협의회(회장 신종우)는 지난 9일 찾아가는 복지 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세대에 사랑의 자전거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한밭대, 아프리카·중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협력 강화
국제교류 촉진 위한 협의·상호 교류협정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6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대학, 8일 우즈베키스탄 카르시대학과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협의와 대학 간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은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김희정 국제교류원장, 최종인 기획처장, 임준목 입학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한밭대 대표단이 이집트와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에 이뤄졌다.
 알렉산드리아대학은 카이로대학교와 함께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학으로 1938년에 설립됐으며, 23개 단과대학에 교직원 7,100명, 학생 15만명이 재학 중인 매머드급 대학이다.
 이 대학은 아프리카 지역과 지중해 연안 지역의 교육 및 연구의 허브(hub)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학과도 공동연구,



복수학위과정을 비롯해 교수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알렉산드리아대학 해삼 가버 부총장은 “한국 대학과의 공식협력 체결은 한밭대가 최초”라고 강조하고, “향후 교수 및 학생들의

진 유학 홍보설명회에 카르시대학 학생과 부속 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참석해 한국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으로 카르시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용남 교수는 “한국에 대한 순수한 동경을 가진 카르시 학생들이 한밭대 유학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영 총장은 “알렉산드리아대학, 카르시대학과의 협정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한국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한밭대 차원에서 잘 수용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립대, 국내 최대 규모 요리경연대회 동상 수상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2017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에서 호텔관광외식과 운성민(1년) 이범수(1년) 학생이 한림을 이뤄 동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조리협회와 사단법인 조리기능장협회 주관 대회인 이 대회에 국내·외 학생 및 전문 요리사 2,600여명이 출전했으며, 충남도립대 호텔관광외식과는 세계요리 전시경연 부문에 참가했다.
 이들은 에피타이지로 아귀간을 이용한 안꼬미, 페닌디시로는 참치살에 양송이버섯을 곁들인 참치 타다기 등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충남도립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하반기 단일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창립 112주년 맞아 연차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가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도청 콘서트홀에서 2017년도 대한적십자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 충남지사로 별도 분리 후, 1년 동안 인도주의 사업에 공이 많은 봉사원, RCY 지도교사, 행정기관 관계자 등 유공인사 1,216명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통령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는 관내 약 2만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 청소년 RCY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시행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대전지역 저소득 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예상되는 대전지역저소득층 5000세대에 동절기 월동난방비를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다.
 대전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017년에도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 시시·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대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원목 공예 창의체험 교육

현대제철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11월에는 DIY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현대제철 직원 부인이 송산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원목을 이용한 'DIY 학용품 만들기' 이론 및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DIY(Do it Yourself)는 개인이 재료를 구입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조립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춰 원목을 조립해 학용품을 만들며, 창조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DIY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학기제 취지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체험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명 서명 운동

대전농협은 지난 10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명 서명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본부, 14개 농·축협 및 은행 영업점, 계열사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농협은 '농업인의 날'(11.11.)을 하루 앞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10일 실시된 가두캠페인은 유성구인영, 공공비축수매장 유성농협(김제사업장) 및 관내 소영농점에서 실시했으며, 권선택 대전시장, 김중섭 대전시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동참했으며, 유성구인영 역에서는 안병서 본부장을 비롯한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지난 11일, 서울 삼양동에 위치한 월드컵경기장에서 70여 개국 종교·정치지도자 2,000여 명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8만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브라질,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케냐, 짐바브웨, 잠비아, 콩고 민주 공화국 등이다.
 희망 대한민국! 평화의 등불 되게 하소서' 주제로 열린 이날 세계대회는 본 행사 격인 1부 '평화비전 스피치'와 2부 '효정 평화공연'으로 꾸며졌다.

충남대 로스쿨,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김술, 김준영, 김진우)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주최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 3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해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을 벌였다.

대전농협, 10일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 실시

대전농협은 지난 10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명 서명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본부, 14개 농·축협 및 은행 영업점, 계열사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농협은 '농업인의 날'(11.11.)을 하루 앞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10일 실시된 가두캠페인은 유성구인영, 공공비축수매장 유성농협(김제사업장) 및 관내 소영농점에서 실시했으며, 권선택 대전시장, 김중섭 대전시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동참했으며, 유성구인영 역에서는 안병서 본부장을 비롯한

대투 논란

트럼프를 통해 본 국익우선주의



김현대 논설고문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안보와 평화를 보장한 한마디로 무역 외교였다.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기본으로 깔고 아시아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맞이해 중국은 무역과 대북 압박 분야에서 다양한 성의를 보였다. 심지어 자금성(紫禁城) 문을 완전히 열어 잠자고 놓고 심장부인 텐안문(天安門)광장을 통째로 비우고 트럼프를 환영하며 황제외전을 베풀었다.

에니메이션(Economical Animal, 경제적 동물)이라고 칭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더하면 더했지 그 이하는 아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사꾼 수완이다.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인색하고 교만하며 안하무인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력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겠다"며 야망을 떨었다.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인색하고 교만하며 안하무인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력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겠다"며 야망을 떨었다. 아베는 이미 이방인에게 여성 기업이 지원자금 이방자 펀드에 57억 엔(57억 엔)을 투자한 미국 기업가에게서 2억 3000만 엔을 끌어냈다.

23년 만에 미국대통령으로서 국민 방문한 트럼프는 1박 2일의 짧은 방문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세밀주의교는 추후의 혼란들이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을 아예 보따리를 다 풀어 제치고 트럼프의 입을 막아버렸다. 북한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중국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트럼프의 방한에서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과연 어느 수준이었는지 살펴보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아니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 환영과 반대의 극명한 행각을 보였다.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면서 얻은 이익이 무엇이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 우파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느냐 북한 공산주의를 지향

하느냐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야,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떠나 국익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안위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떠나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이번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바라보면서 다 파주는 듯 보인 일본과 중국의 깊은 속내를 보게 된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단수와 쉼표 없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체면을 차리지 않는 이들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사설

신용대출 폭증 대책 있어야

10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올해 최대폭으로 늘었다. 기존에 승인된 집담대출 수요가 이어진다. 사상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 연휴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자금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8월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금용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0조원 늘어 올해 최대폭으로 증가한 지난 5월(10조 증가)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중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756조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증가, 올해 최대 폭으로 늘었다. 최근 2년간(2015~2016년) 10월 평균 증가액 8조2000억원보다는 낮지만 그 이전(2010~2014년) 4년간의

10월 평균치인 3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 높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8월 6조6000억원 늘어난 이후 지난 9월 4조9000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한 풀' 꺾이는 모습이었으나 지난달 6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도로 확대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급격히 불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9월 증가액(1조7000억원)보다도 두배 이상 늘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늘어난 소비에 따른 카드 결제 등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카오톡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있다. 가계빚이 줄기는 커녕 늘고 있다니 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 기준 70세 상향, 공론화할 때 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나이기준을 65세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가 65세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비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료 이용으로 생긴 적자를 중앙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를 보류했다.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제는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은 노인복지 시스템 중 하나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의 무료이용 노인 수는 지난 5년간(2011~2016년) 2억6833만명(연인원에서 3억4502만명)으로 29%, 금액으로는

2751억원에서 4389억원으로 60%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비율이 올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15.7%, 2040년엔 32.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대부분 65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의학계는 수명 연장과 의료수준 향상으로 신체적 특성에 따른 노인 나이기준을 70세로 보고 있다. 실제로 60대 후반에도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노인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복지비가 한해 2조5000억원 줄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노인복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이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 3년마다 1년씩 완만하게 올리면 노인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대한노인회는 이미 2015년 노인 나이 기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과 노인 설득에 나서주기 바란다.

건강 칼럼

임신성 당뇨, 출산 후에도 당뇨 고위험군



장이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꺼진다. 임신성 당뇨에 대해 알아본다.

◆가짜력 없어도 산모 누구든 당뇨 위험성 있어

임신부의 당뇨는 임신 중 처음으로 진단된 임신성 당뇨와 임신 전부터 당뇨를 갖고 있는 현성당뇨로 나뉜다. 임신성 당뇨는 임신 초기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

임신성 당뇨는 이전에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산모에서 당뇨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사 방법은 1단계 접근법과 2단계 접근법이 있다. 1단계 접근법은 임신 24~28주에 75g 경구포도당부하 검사를 통해 공복혈당 92mg/dL 이상, 1시간 혈당 180mg/dL 이상, 2시간 혈당 153mg/dL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접근법은 임신 24~28주에 음식 없이 50g 경구포도당부하검사를 통해 시행해 1시간 혈당 140mg/dL 이상일 경우 음식 후에 100g 경구포도당부하검사를 시행하며 공복혈당 95mg/dL 이상, 1시간 혈당 180mg/dL 이상, 2시간 혈당 155mg/dL 이상, 3시간 혈당 140mg/dL 이상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임신성 당뇨로 진단한다. 1단계 접근법은 아직 기준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제로는 2단계 접근법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성 당뇨는 모체의 혈당조절이 안 되는 경우 태아와 관련된 산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출생체중이 4kg을 넘는 거대아의 경우 난산 및 제왕절개 빈도수가 높아진다. 또 신생아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 분만 후 주의해 살펴야 하고, 선천성 기형의 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적혈구과다증, 고빌리루빈혈증, 호흡곤란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공복, 식전 혈당보다 식후 혈당조절이 중요

공복혈당 95mg/dL 미만, 1시간 혈당 140mg/dL 이상, 2시간 혈당 120mg/dL 미만을 조절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후 혈당을 기준으로 치료했을 때 거구증이나 제왕절개술이 감소했다고 해 공복 또는 식

전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 조절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당화혈색소의 경우 6~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철저한 혈당조절로 주산기 합병증 및 산과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식이 관리 및 적절한 운동, 필요하면 인슐린 치료를 통해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

출산 후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정상 혈당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임신성 당뇨는 수년 후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을 알리는 경고가 된다.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17~63% 정도가 5~16년 안에 당뇨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 여성은 산후 6~12주에 혈당 상태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출산 후 평가에서 정상 혈당을 보인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당뇨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며, 공복 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복 혈당을 적어도 매년 시행하면서 운동 및 식이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임신성 당뇨는 가족력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비만이나 이전에 임신성 당뇨를 겪었던 경우, 거대아를 분만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이미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던 신모(30)씨. 하지만 임신 7개월째 실시한 당뇨검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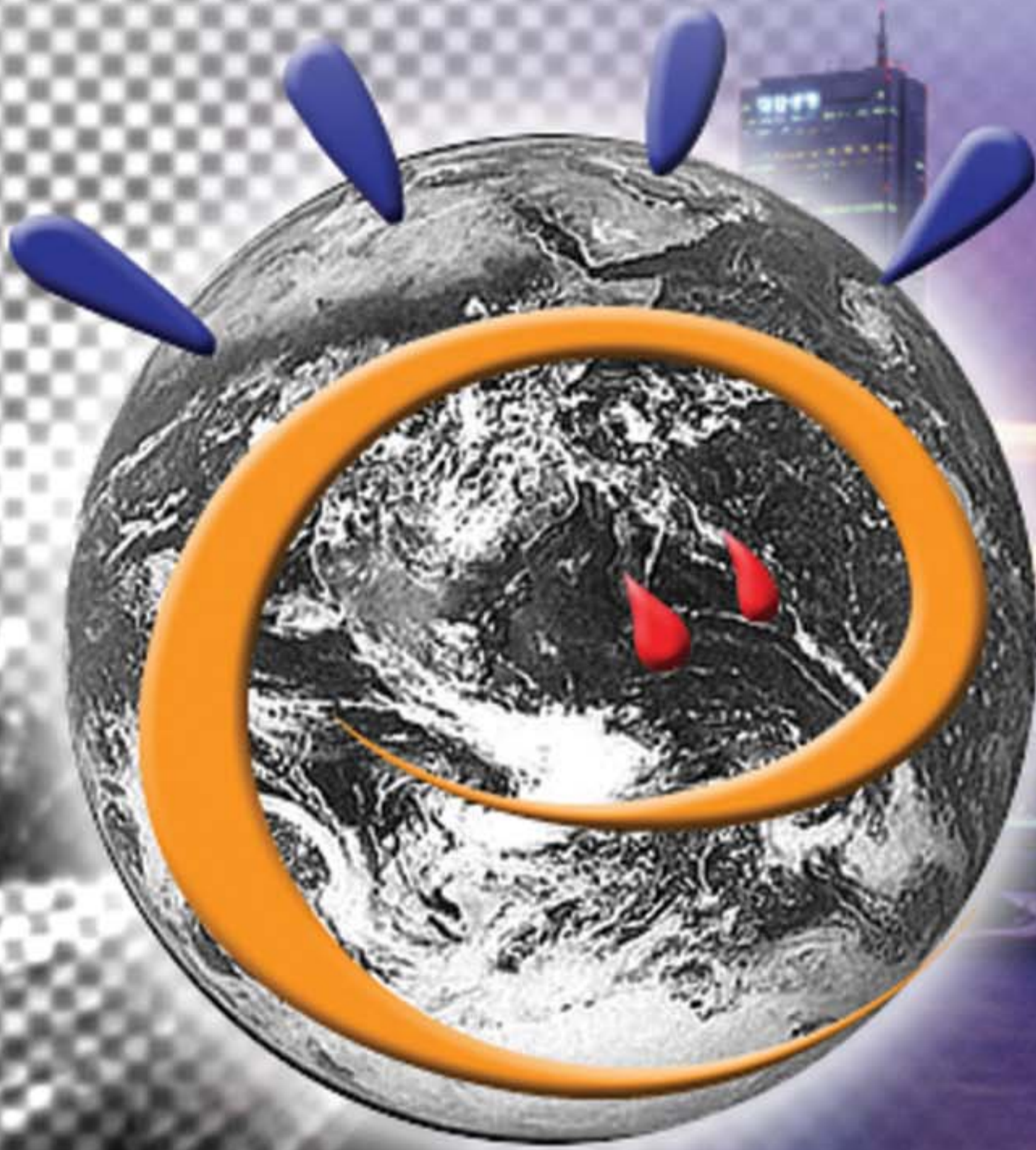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함.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news items and dates. Includes text like '오늘의 소사' and various news snippets.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른신문

Table with columns for staff information: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기사제보, 팩스번호, 구독료, 서울지사, 인쇄처 등.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비산업기술진흥재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력금용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KRRI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KRRI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san Forestry Cooperative

 대한민국에너지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금산공판장G마트